

기사 구성과 특징으로 본 ‘문화 저널리즘’의 변화상과 함의

주요 일간지 문화면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경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기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세은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문화 저널리즘’은 광의의 저널리즘의 한 분파이자 확립된 유형으로 존재해왔지만, 학술영역에서 문화 저널리즘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희소하다. 이 연구는 제도언론 영역에서 추구되는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과 현황 그리고 실천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 문화면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했으며, 관련 학술자료와 기사들을 통한 질적인 해석을 함께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0년 전(2003~2004년)과 비교하여 현재(2013~2014년)의 신문 지면은 늘어난 데 반해, 문화 관련 기사의 전체 게재량은 감소했으며, 문화면 이외의 종합면 등 타 지면에 게재된 기사의 비율 또한 줄어들었다. 한편, 문화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보도된 기사와 ‘지식·교양’ 또는 ‘여가·오락’으로서 문화에 접근하는 관점의 기사들은 줄어든 반면, 문화현상을 ‘상품(광고)’과 ‘생활’로서 접근하는 기사들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비평·리뷰·해설’을 담아내는 기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저널리즘의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학술’과 ‘공연·전시·미술·음악’ 같은 주제를 다루는 기사들은 줄어들었으며, 대중문화와 여행, 패션, 미용 등의 광의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연성적인 주제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독자와 관객을 포함하는 수용자들의 기고가 일부 늘어났다는 점 외에 기고자의 선정이나 직업적인 특성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독자를 직접 인용원으로 삼는 기사가 부분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외에 직접 인용 취재원의 활용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문화콘텐츠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는 사회문화적인 상황과는 달리 종합일간지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관련 보도와 기사의 생산은 양식적인 다양성과 구성적인 차별화 그리고 광의의 비평적인 관점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문화 저널리즘, 위상과 실태, 문화면의 구성, 기고자와 취재원, 내용분석, 질적 해석

*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김세은·이기형·김경희(2014). <디지털 시대의 문화 저널리즘 연구>의 일부 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 khkim@hallym.ac.kr 제1저자

*** barthes@khu.ac.kr

**** news@kangwon.ac.kr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문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그리고 함의가 지대하다는 측면은 다수의 연구와 지적·학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적지 않은 진단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며,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자명'하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대중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역할에 관한 관심과 지적, 미학적,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이나 함의 등을 탐구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존재한다(강준만, 2013; 김기봉 외, 2007; 원용진, 2010; 이동연, 2010; 정수복 외, 2014; 홍성태, 2006). 한편 저널리즘 영역의 일간지와 주간지 등도 다양한 문화현상과 (대중)문화를 통한 상업적 이해관계의 측면이나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변동과 트렌드 변화를 조명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 문화면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문화가 저널리즘에 의해 다루어지고 재현되는 방식을 수집된 기사들에 관한 내용분석을 매개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함의점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제도언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문화 저널리즘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가 매우 희소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여나 참고 자료로서의 의의가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기존에 이루어진 문화 저널리즘 관련 소수의 학술연구들이 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한 질적인 탐구나 지면의 구성을 조밀하게 풀어내고 진단하는 내용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양자 사이의 관찰된 논점과 진단을 연계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크게 추구되지는 않았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즉 이 작업은 10년을 단위로 주요 일간지 문화면과 다른 지면 속에서 생산된 문화 관련 기사의 특징과 변화상을 탐구하되, 질적인 측면의 논의와 해석 그리고 추정을 보완시키는 방식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과 관련된 일정한 대안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다소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간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진단은 많았지만, 문화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나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작업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 문화 콘텐츠가 발휘하는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이나 문화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현황에 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감각의 구조'로서 기능하며 사회변화를 매개하는 문화의 생산적인 역할과 역량을—즉 문화라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다면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의 문화 저널리즘에 대한 접근은 크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김열규, 1991, 67쪽; 이택광, 2011 참고).

이 연구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업적인 이해관계나 이익 가능성으로 주로 기능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안적인 지적·학술적인 관심과 접근이 더욱 긴급하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제도언론이 발현하는 문화 저널리즘에 대한 진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문화 저널리즘’에 개입하는 사회 내 행위자로서 기존의 제도화된 언론매체의 경우, 주로 언론사 내 문화부를 중심으로 기자 집단이 관행적으로 혹은 단기적인 취재나 특정 개별 사례에 집중하는 취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거나 부상하는 문화현상들에 관한 보도와 조명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 기자 집단의 경우, 문화재에서 예술, 건축, 대중문화, 방송영역,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영역과 관련된 주요 동향과 일련의 문화현상들을 취재·보도한다. 이는 언론의 문화 관련 지면구성에서 일정한 장르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구현되기도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공간이 크게 확장되고 상당한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매체들 또한 지면이나 보도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광의의 문화 관련 정보와 해설 그리고 비평적 진단을 담은 관점과 담론들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남재일, 2014; 이상길 외, 2013; 정재철, 1996).

부연하면, 과거에 언론이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답적인 문학이나 고급 예술 혹은 문화재 등의 영역과 관련된 취재와 재현을 담당해왔다면, 현재는 영상이나 건축, 대중음악 그리고 온라인에서 부상하는 주요 트렌드의 변화상이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문화의 동향 등에 관련된 보다 복합적인 또한 부분적으로는 특화된 기사와 비평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요 일간지들의 경우, 기존의 문화면이나 주말 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학자나 비평가 집단의 활동상과 비교하면, 기자들의 작업은 언론사 내부에 확립된 기사쓰기와 취재의 관행을 지키되, 논조와 관점 그리고 진단방식 등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혼종성 등을 일정 부분 보여준다.¹⁾

예를 들면, 주요 문화생산현장의 취재,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특정 문화현상이나 문화적 쟁점이나 갈등적인 이슈 등에 관한 진단을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혹은 유연하게 풀어내는 연작 기사들도 주기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고종석 외, 2007; 안수찬, 2013). 즉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학계에서 제도화되고, 비평가 집단이 수행하는 담론생산이 상당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게 됨에 따라, 문화부 기자들이 생산하는 기사들 속에도 이러한 영향과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1) 관련 예를 들면, 문화 담당 기자들이 생산하는 기사들의 경우 역피라미드 방식의 그리고 선택된 팩트를 강조하는 주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양식 외에,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기성의 비평문이나 지식영역 내 문화담론 일부와 유사한 - 동시에 상대적으로 호호미 짧은 - 비평적·해석적인 글쓰기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서평과 문화 트렌드의 진단을 전하는 일련의 기사들이나 특집 속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된다.

주지하다시피, 기자들은 이론적, 비판적, 거시적인 진단과 조망에 주로 주력하는 연구자 집단과 달리 변화하는 문화현실 속에서 관심을 끄는 특정 사례나 구체적인 문화트렌드의 의미와 변화상을 보다 집약적으로 취재하고, 전달하며, 이를 일정한 해석틀이나 프레임에 매개로 수용자들에게 전하는 '매개자'와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수용자의 문화적 관점과 라이프스타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된다.

특히 이 연구는 제도언론이 제시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실행적인 측면을 10년 전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영역을 둘러싼 정보의 매개와 담론생산의 주요 주체들 중의 하나인 언론사 기자 집단이 제공한 기사와 연작 등의 생산물의 구성적 측면이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작업을 10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과 실행의 방식이 신문지면 내에서 어떠한 위상의 변화와 구성적인 차이들을 드러내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문화 관련 기사 생산의 또 하나의 주체인 기고자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기자 집단이 기사를 생산하면서 활용한 취재원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주요 일간지가 생산하는 문화 저널리즘 기사들의 특징과 더불어 한계에 관한 관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면서, 연구진이 제기하는 관찰점과 논점의 설득성이나 조명된 문제점의 현실 관련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널리즘의 변화하는 현실과 문화재현의 단면을 다룬 일련의 기사들과 비평작업, 관련 학술자료들을 참고하였다.

2. 연구의 배경

1) '문화 저널리즘'의 정의와 위상, 그리고 역할에 관한 논의

먼저 문화 저널리즘에 관한 간단한 정의와 함의를 내려 보면, 김영욱(2004)은 문화 저널리즘의 영역을 '심미적 경험의 대상에 대한 보도', '문예비평', '문화현상에 대한 보도와 비평', '문화 정책과 문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심미적 경험의 대상 제공'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는 보다 확립된 미국과 유럽의 문화 관련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특징이나 문화연구적인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분야별 그리고 주제별 문화 관련 저널리즘의 주요 지향성을 세분화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의내리기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의의 문화 관련 이슈나 주요 주제와 트렌드, 행사, 인적 활동상 등의 측면을 취재·보도·전달하는—즉 '매개적인' 기능이 주도하는—저널리즘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가치와 기

능들을 설파한다. 부연하면, 김영욱이 제시한 논점은 독일과 프랑스 혹은 미국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언론의 사회 내 다양한 문화적 실행들을 참고하면서, 해석과 비평작업 그리고 문화영역 내 권력 작용에 대한 감시와 비판성의 개진 등을 강조함으로써 특정한 가치가 투사된 활동과 생산을 발현하는 ‘해석자’이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는 ‘담론생산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언론사 내 문화 관련 기자들이 보이는 활동상과는 일정한 거리감이나 괴리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문화 권력에 대한 감시나 큰 틀에서 새로운 문화트렌드의 함의를 심도 있게 진단하는 작업은—비록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매우 큰 주목이나 지속적인 필요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관찰되기 때문이다.²⁾

한편, 문화연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윤선희(2006)와 이기형(2006)의 문화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 내리기와 진단은 앞서 김영욱(2004)이 내린 분류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문화담론의 부상과 함의를 저널리즘 영역 내 기자 집단에게 제시하면서, 문화 저널리즘의 현황과 역할에 관한 보다 숙고된 문제의식의 심화를 위한 일종의 ‘말 걸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제기된다.

이들은 인류학과 문화연구가 주목하는 문화의 상징성과 혼종성 그리고 사회변화의 간과된 동인으로서 문화와 대중문화가 발휘하는 복합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역량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거시적인 의미화와 비판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담론생산의 흐름 속에 문화 저널리즘을 하나의 긴요하지만 간과되어온 하부 구성요소로, 또한 지식담론과 저널리즘의 실천이 교차되는 일종의 ‘접경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심화된 발상 그리고 전술적인 논점의 제기는, 정의 내리기와 역할의 측면에서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 저널리즘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한 숙고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한편 홍은희(2012)는 앞서 제기된 문화 저널리즘의 범주나 정의가 매우 크며 다양한—동시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측면들을 노정한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저널리즘 내부에서 특정한 주제나 출입처를 중심으로—즉 “예술”과 “연예” 등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저널리즘적인 실천과 활동상에 관한 진단을 중심으로 문화

2) 물론 이러한 서구의 문화 저널리즘과 한국 언론이 발현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차이나 후자가 보여주는 한계와 정체에는 복합적인 제도적인 요인들이—저널리즘 제도 내 확립된 전통과 관행성의 효과, 인적·물적인 지원, 재교육, 스타 기자의 발굴과 양성 등—개입한다.

저널리즘의 역할과 현실을 탐구한다. 이러한 입장은 언론사 소속 문화부 기자들이 재현해 온 문학 음악 및 미술 등의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저널리즘 제도 내부의 관행과, 영역과 기능이 매우 커진 대중문화와 연예 관련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자들의 과거보다는 상당히 확장된 취재와 진단의 현실을 결합시킨 것이다. 반면에 기자 집단의 문화 관련 취재와 작업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로서, 이 분석은 저널리스트들만이 아닌 문화연구자나 문화 비평가 등의 집단이 수행하는(대중)문화 관련 주요 담론과 비평 그리고 진단이 발휘하는 명과 암이나 현실 속의 다기한 실천을 주변화하며, 세밀하게 진단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³⁾

또한 김세은(2009)은 문화 저널리즘이 “한 시대와 사회의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는 문화적 생산과 소비 행위들에 대해 보도와 해석이라는 방식을 통해 특정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시대와 사회의 인정 또는 배제(의 가능성)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나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개진된 홍은희의 입장과 비교할 때 보다 포괄적이며, 동시에 문화가 함의하는 사회 내 의미작용과 더불어 해석과 진단의 사회적 치적인 역할이나 효과까지도 포함시키려는 보다 차별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매우 복합적인 의미들과 사회적 변화상 그리고 함의들을 포함하는 문화와 저널리즘의 활동이라는 두 개의 이미 복잡한 구성물을 결합시키면서, 문화 저널리즘의 개념과 역할을 명쾌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이해관계, 지식과 삶의 체계, 분화된 전문성, 학계와 언론제도 내부의 상이한 가치체계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 저널리즘을 정의하면서 특정한 개념이나 분야에만 주목하거나 단정적이거나 기능적인 설명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과 환경 측면의 변화를 논하는 작업이 복수의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해보인다.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 이상길(2013)은 문화 저널리즘의 변화하는 환경과 추세 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단의 방식을 제시한다.

3) 이러한 쟁점은 문화 저널리즘의 정의와 사회 내 위상과 역할 등을 메타분석이나 담론비평, 혹은 전문가 인식 조사 등의 방식으로 풀어야 할 또 다른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 비평가와 연구자 집단은 언론지면에서 주기적으로 문화비평이나 대중문화분석 등의 기고문이나 비평문을 제공하는 필진들이자, 기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트렌드나 문화현상과 관련된 자신들의 관점과 해석 그리고 진단과 주장을 제시하는 주체들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가 주목하는 영역이나 주제에 따른 집중도나 초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 주요 행위자의 활동과 역할을 문화 저널리즘의 영역과 진단작업 속에서 빼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문화 저널리즘은 좁은 의미의 예술 저널리즘, 이른바 ‘고급예술’에 관련된 언론활동과 거의 동의어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고급예술만이 아닌 대중예술과 민속예술 역시 예술이라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 선다면, 나아가 문화가 예술이나 문화산물 수준을 넘어서는 ‘총체적 삶의 방식’이라는 ‘인류학적’ 관점에 선다면, 사정은 좀 달리 보인다. 문화 저널리즘은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약화되기는커녕 그 외연과 대상영역을 계속 확장해 왔으며, 단지 ‘고급예술’ 위주로부터 대중문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문화 위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6쪽).

이러한 문화 저널리즘을 둘러싼 환경과 영역변화에 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이상길은 문화 저널리즘이 발전하는 현실변화에 착종된 ‘절충적인’ – 동시에 다면적인 함의를 고려한 ‘전술적인’ –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 지점에서 언론이 문화를 다루는 현실의 변화상에 관해 좀 더 알아보자.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에 문화영역을 대상으로 했던 저널리즘의 취재와 진단이 문화와 문인, 서평, 그리고 한정된 예술분야나 문화재 등의 측면에 주로 집중되었다면, 이제 언론이 수행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문화 혹은 취향(tastes)과 대중문화의 수용 등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제도언론 영역 내 문화 저널리즘의 확장과 관련하여, 앞서 논한 홍은희(2012) 등이 제기한 ‘연예 저널리즘’의 확산된 역할이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새로운 핵심어휘나 관련 영역이 주요 언론의 지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변화된 현실, 그리고 이 개념에 수렴하는 다양한 기사와 보도의 생산들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길(2013) 또한 “문화 저널리즘은 예술 이외에도 라이프스타일(일상생활, 여가, 취미, 인간관계, 심리, 웰빙 등)과 소비(자동차, 패션, 요리, 주거, 여행, 테크놀로지 등)까지를 포괄한다”라는 관찰점을 제시하기도 한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 저널리즘이 주목하는 주제적인 다양화와 혼종화 그리고 확산은, 어떤 주제와 유형의 기사와 보도 양식들이 등장하고 늘어났으며 또한 축소되고 쇠퇴해 왔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상이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함의와 더불어 광의의 문화 저널리즘 영역 내 인식의 차이를 표출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해석의 필요성을 강하게 개진한다.

한편 남재일과 박재영(2013)이 지적하듯이,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대중적인 그리고 상업적인 관심이 증폭되면서 특히 1990년대 이후 언론의 문화면은 꾸준히 확장

4) “이런 문화 저널리즘의 ‘광역화’는 소비문화의 확산, ‘문화경제’의 성장 및 ‘일상생활의 심미화’ 같은 사회경제적 변동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현상이다.”(이상길, 2013, 7쪽).

되어온 바 있다. 종이매체인 신문의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영화 비평이나 문화 트렌드나 대중음악에 관한 진단, 그리고 패션과 스타일에 관한 기사와 논의들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한류 붐'을 필두로 한 특정 문화콘텐츠의 부상과 사회경제적인 관심 및 함의에 초점을 맞춘 저널리즘의 연작기사나 문화면을 매개로 한 집중적인 진단 등이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중음악 영역의 '아이돌 현상'의 함의나 '스타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긴 지면을 통해서 조명하는 작업들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⁵⁾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은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결과 장르적인 특성을 발하는 문화'들의 확산과 더불어 대중의 취향 변화를 포함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제도언론이 관여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확장되고 '장르적'으로도 분화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오락과 연예, 스타와 셀러브리티(celebrities) 등을 중심적인 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뉴스의 연성화' 경향이나 이른바 '연예 저널리즘'으로 언론의 문화 관련 취재와 보도가 상업적 이해관계와 연계되면서 집중되는 명과 암을 복합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요 언론의 지면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후발매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의식하면서, 제도언론이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의 압박'이 상존한다는 측면이 확연하게 감지되기도 한다.

반면에 문화부 기자의 전문성의 모색이나 강화와 비평의 추구나 이를 위한 지원 등의 문제의식이 저널리즘의 장 안에서 명백하게 약화되며, 충분한 제도적인 고려와 발상의 전환을 생성하고 있지 못한 '이면'도 문화 저널리즘을 담당하는 기자들에 대한 면대면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일정 부분 탐구된 바 있다(김세은·이기형·김경희, 2014).

동시에 온라인의 부상과 일상 속에서 소셜 미디어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커지고 동시에 종이매체가 상당한 제도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양질의 기사와 비평의 생산에 주목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이 오히려 일정하게 축소되거나, 속도감 있는 보도나 '어뷰징' 등의 행태를 발현하는 다양한 후발매체들에 의해 크게 도전받거나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 확연히 관찰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문화 저널리즘의 실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비중을 두었던 학술이나 지식과 교양 혹은 고급예술에 대한 관심과 가치의 투사와 비중이 줄어들고, 전문성이 발휘되는 비평이나 해석보다는 단편적이고 차별화가 충분히 되지 않는 정보 위주의 기사나 분석의 심도가 얇은 기사들이 늘

5) 이러한 측면은 연구진의 관찰점 외에, 이 연구와 병행하여 수행된 언론사 내 전·현직 문화부 기자 집단과의 심층인터뷰 과정에서도 제기되고 논의된 바 있다.

어나는 등 문화 저널리즘의 ‘연성화’ 경향과 함께 상업적인 고려의 강화 등이 관찰되는 것이다(김세은, 2009; 이기형, 2014 참고).

물론 문화면 기사들이 연예와 소비현상 그리고 상업문화 등을 다루는 소재적인 측면의 다양화나 주제적 광역화가 모두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독자들의 관심사와 취향, 이들 주체들이 소구하는 재미와 오락적인 기능들, 그리고 이들이 접하는 문화의 일상성과 편재성 등을 고려한 저널리즘의 ‘현실적인’ 대응이자, 독자의 관심을 고려한 지면구성의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김세은(2009)이 2008년 6월 한 달간에 수행한 일간지 문화면의 내용분석이 간단하듯이, 이 지면에 등장한 기사들 중에서 “생활 관련 기사(패션, 미용, 취미, 여행, 요리, 맛집, 건강 등)는 약 33%”를 점유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즉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과 취미 또는 소비와 스타일 관련 정보의 평면적인 전달이나 ‘얕은’ 수준의 트렌드의 소개와 조명 등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담아내는 언론 문화면의 연성화 경향은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이나 역량이 상당 부분 ‘수요 종속적’이며, 질적인 변환과 보다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이상길, 2013).

이 연구는 문화 저널리즘의 실천과 함의를 언론장 내 기자 집단들이 생산하는 문화 관련 기사들의 위상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 관련 기사들 속에 반영되는 관점과, 콘텐츠의 중심성, 그리고 해설과 비평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내용분석의 함의와 해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선행연구와 기사들을 보완적인 진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⁶⁾

2) 문화 저널리즘의 실행과 기고자 및 취재원의 역할

저널리즘의 생산에서 기고자나 취재원이 차지하는 영역은 기자 못지않게 크고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기고자나 취재원은 기사의 성격과 정보 그리고 사회적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자원이자, 기사가 다루는 내용에 대한 권위나 설득성을 부여하거나 강화하며, 기사의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흔히 활용된다. 또한 기고

6)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과 명암과 관련된 논의를 탐구하면서, 본 연구는 2장에서 정리·제시한 이 주제에 관해 논점을 제기한 문화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한다, 즉 이들 주체들이 강조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해석적/비판적인 기능과 다기한 문화현상을 풀어내는 담론생산의 역량에 주목하는 관점과 문제제기를 이 연구 속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자는 언론사가 글을 쓰도록 일정 지면을 내준 사람이기에 언론사 내부에서 선정된 이들 주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제시된 글의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도 된다. 이들은 또한 부족한 언론사 인력을 어느 정도 대체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전문성이나 보다 심화된 관점이 녹아든 기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안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취재원은 기자 집단이 이들의 발언이나 진단 혹은 견해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언론사나 기자가 체화하는 특정한 지향이나 방향성을 실제적으로 구성하는데 상당한 역할 혹은 쓰임새를 발휘하게 된다. 즉 기고자나 취재원은 기사 내용에 대한 인정과 공인 혹은 선택적인 배제를 구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기사의 경향성이나 프레임 등을 대상으로 삼는 많은 연구들 속에서 기고자나 취재원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특히 기고자나 취재원에 대한 분석이 상당한 의의와 함의를 드러낸다. 문화의 영역은 다루는 주제나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 상 다른 영역의 기사들보다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문화부에 충분한 인력을 배정하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 기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는 문화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 자체가 지금까지 매우 드물었을 뿐 아니라, 소수의 관련 연구들 역시 기사의 내용이나 주제 분류에만 주로 분석적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화 관련 기사 유형의 변화를 탐구한 박선영(1999)의 연구에서 기자와 기고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1965년 기자의 비율이 68%에서 점점 상승해 1975년과 1985년에는 82%대를 보이다가 1990년에는 91.7%까지 상승했지만, 1995년 다시 81.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쪽). 기고자의 분포를 보면, 전문비평가와 학자는 1965년 각각 16.6%와 12.5%에서 1995년에는 각각 5.9%로 대폭 감소한 반면, 예술가는 8.3%에서 4.2%, 독자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70쪽).

이러한 변화상에 관해 박선영은 외부 기고자가 제공한 문화 기사가 뉴스성이나 사회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관습성이 존재했으며, 그러한 문제의식이 언론사 내에서 일정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특히 문화 기사의 뉴스적인 측면과 가치의 강화와 같은 문제의식이 기자들이 주도하는 기사 속에서 증가했다는 판단을 제공했다. 그는 언론사 내에서 문화부 기자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제도적인 그리고 직능적인 변화와 함께, 대중문화 관련 기사의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문화 관련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 등을 들고 있다(71~72쪽).⁷⁾

이러한 분석 결과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6개 중앙일간지 문화면 분석을 했던 홍은희(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홍은희는 기자와 기고, 통신사 기사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기사생산에서 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90%를 넘기도 했으나 2007년에 다시 82.5%로 감소하여 1987년의 79.7%와 비슷해졌으며, 기고자 비율도 1997년 7.4%에서 2007년 17%로 늘어나 1987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기사는 전체를 통틀어 6건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에 대해 홍은희는 증면으로 오피니언 면이 늘어나면서 외부 인사들의 칼럼난이 대폭 확대된 것을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155쪽).

이 연구가 제기한 또 다른 중요한 관찰점도 존재한다. 외부 기고자들의 경우, 지면에서 자신들이 논하는 대상에 관한 호불호의 입장과 견해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반면에, 대다수 기자들이 생산한 기사들은 다루는 대상에 관해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2013)이 논하듯이, 이러한 측면은 언론사가 주도하는 문화 저널리즘의 실천 속에서 비평가 논쟁의 부재나 심화된 문제 제기의 기피 등의 양상이 존재하며, 기자 집단의 전문성이 취약하거나 진단과 분석의 날이 무딘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의 문화면을 비교, 분석한 김진국(2014)의 연구도 외부 전문기고자 대 기자 집단의 기사 생산을 분석한 바 있다. 외부전문가는 1990년대 전반 44건에서 점점 늘어나다가 2000년대 후반 39건으로 다시 줄어들고, 반면 일반기자과 전문기자 등 내부기자는 360건에서 78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148쪽). 김진국은 이에 대해 기사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실명 확인제 기사로의 전환과 전문기자 도입 등을 주요 계기로 보고 있다(168쪽).

한편, 취재원은 기고자와 마찬가지로 생산되는 기사에 관한 신뢰성이나 심화된 정보와 관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자 다양성과 방향성을 담아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사의 수준을 논할 때 간과하기 어려운 대상이라 할 수 있다.⁸⁾ 취재원과 관련한 기

7) 장기간에 걸쳐 탐구된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박선영이 제기하는 이러한 관찰점은 일정한 설득력을 발휘하지만, 대중문화의 영역 확장과 이에 대응하는 저널리즘 장 내 기자들의 기사생산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다소 평면적으로 '읽어내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이러한 분석 속에서 주요 일간지들이 보다 양질의 그리고 장르적인 세련성이나 고급화 그리고 심화된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화 저널리즘의 기능을 정의하려는 집합적인 노력이나 문제의식이 충분히 추구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8) 한편, 김사승(2004)은 기자의 전문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소수의 취재원에 의존한 취재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옮겨 기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지만, 여러 명의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는 취재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거나 양질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에서 기자 집단이 발휘하는 전문성이나 안목의 변화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존의 연구들은 주로 취재원의 '편향성'에 관심을 두거나, 익명 취재원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이재경·김진미, 2000, 294쪽).

그럼에도 문화 저널리즘과 관련한 체계적이거나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취재원 분석은 시도된 사례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홍은희(2012)의 경우 문화 기사의 취재원을 '평판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바 있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대가 원로'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을 지적하면서, 이는 새로운 정보원을 발굴했을 때 따르는 기사의 부담을 피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려는 기자 집단의 성향에 기인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162쪽). 또한 이 연구는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가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점을 기능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질서에 쉽게 편입하려 드는 측면을 관찰하면서, 신인이나 중견 이하보다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스타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들을 중용하는 문화 기사 생산의 경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162-163쪽).

이재경과 김진미(2000)는 중앙일간지 기사의 취재원 수를 분야별로 분석했는데, 정치기사는 평균 1.49개, 경제는 1.33개, 사회는 1.20개, 그리고 국제는 1.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301쪽). 또한 전체 기사 가운데 58% 가량이 하나의 취재원만을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취재원의 '빈곤'은 우리나라 방송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지현과 고영철(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TV 뉴스의 평균 취재원 수는 1.47명에 불과했다(543쪽). 취재원과 인터뷰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궁협과 안주아(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뷰이가 한명도 없는 경우가 광주 지역 TV 뉴스의 경우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쪽).

이렇게, 소수의 취재원 또는 취재원의 '획일화'는 한국 저널리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적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보도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기사 쓰기, '출입처 제도'에 의한 취재원과의 관계 맺기와 노동 강도 증가 등은 취재원이 고정화되거나 아예 부재하는 기사를 만들어내고도 있다(김동규·김경호, 2000; 안수찬, 2007; 2013 참고). 이러한 측면은 일부 언론사에서만 나타나는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취재방식이나 언론사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공통의 노력이 시행될 필요가 상당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저널리즘에서 문화 기사를 생산하는 주체는 크게 기자와 기고자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고자는 특정 지면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심화되고 감각적인 진단이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 저널리즘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하거나 잠재적으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자라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 인용으로 활용되는 취재원은 인터뷰 내

용이나 제기한 시사점과 관찰 등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기사 속의 정련된 관점이나 가시적인 흐름과 효과를 보완 또는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은 언론사와 기자가 거의 전적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 어떤 기고자와 어떤 취재원의 인터뷰를 선택하는지는 문화 기사의 콘텐츠적인 구성과 질적인 평가를 가늠 또는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특히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의 선택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했으며, 또한 달라지지 않고 있는 관행이 함의하는 측면은 무엇인지에 관해 속고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매우 복합적인 (대중)문화현상에 관한 저널리즘의 작업이 발현하는 관행적, 장르적, 질적인 특징과 함의 그리고 시대적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000년대 한국 언론이 생산한 일련의 문화 기사들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진이 제기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0년 전과 비교하여 신문사내에서 문화 기사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연구문제 2: 10년 전과 비교할 때, 일간지 지면에서 문화 저널리즘의 구성과 특성 - 즉 콘텐츠 중심성, 기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 비평·리뷰·해설의 비중, 주제별 비중 - 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연구문제 3: 10년 전과 비교할 때, 문화 기사에 등장하는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가?

이러한 연계된 질문들은 한국사회에서 문화영역이 팽창한 지난 십수 년 간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변화상을 제도화된 저널리즘이 어떤 방식과 관행의 조직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초점과 입장을 통해서 제시해왔는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을 진단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후속 연구를 위한 초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언론의 전체 지면에서 문화 관련 기사들의 구성적인 특성과 차이들, 문화콘텐츠에 관한 중요성과 인식의 변화, 기사 작성방식이나 유형의 변화와 추이, 기고자와 취재원의 선정과 변화상 및 동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학문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함의와 참고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년의 차이를 두고 문화면의 구성과 논점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거나 혹은 유사한 측면을 발현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작업은 학술적인 필요성을 넘어, 저널리즘 영역 내의 생산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함의와 통찰 또한 일정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⁹⁾

부연하면 문화와 저널리즘이 만나는 경계지역과 밀접하게 관계되거나 문화 저널리즘이라는 표제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선행연구들이 매우 희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은 학계의 연구자와 언론제도 내 기자 집단에게 유용한 해석의 자원과 더불어 비교사례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주요 신문의 문화면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면의 변화와 구성상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제기한 분석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작업은 언론학 내 연구자와 기자 집단에게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과 역할을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개선과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근거 자료와 더불어 함의와 제언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문화 뉴스 보도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면부터 전체 면까지 문화 관련 기사를 모두 표집했다. 문화면만을 한정해서 진단을 할 경우, 언론사에서 문화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문화 기사가 담아내는 뉴스가치의 변화를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신문은 한국 언론의 지형을 감안하여 보수적 관점의 신문들 중에서 사회적 지명도가 상당하며 발행부수가 많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그리고 진보적인 신문 중에서는 그러한 지향성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한겨레를 선정했다.

문화 관련 뉴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와 10년 전의 문화 기사를 표집해서 비교 진단하기로 했다. 분석 기간은 2013년 9월 1일~2014년 8월 31일까지의 1년

9)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진이 접촉했던 문화부 기자들의 다수는 자신들이 생산한 기사에 관한 독자들의 반응이나 판단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조사가 사내에서 제대로 혹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문제의식 또한 언론사 내에서 크게 모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과 2003년 9월 1일~2004년 8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했다. 한편 그간에 1년 치 신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할 때 얼마의 기간을 중심으로 표집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그 중에서 위스콘신 주 지역신문을 표집해 연구한 스템플(Stempel, 1952)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이 골고루 포함된 12일을 분석했을 때 1년 동안의 신문을 분석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Riffle, Lacy, & Fico, 1998, 재인용).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하는 연구를 토대로, 2013년 9월~2014년 8월, 2003년 9월~2004년 8월의 신문을 대상으로 각각 12일을 표집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일의 선정은 클락(Clark, 1960)의 ‘회전식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첫 번째 사례는 첫째 달 제 1주 월요일, 두 번째 사례는 두 번째 달 제 2주 화요일, 세 번째 사례는 세 번째 달 제 3주 수요일 등의 순서로 표집 했다(차배근, 1979, 재인용). 이 과정에서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일요일은 제외했으며, 월요일과 화요일 등 각 요일이 두 번씩 포함되도록 선정했다.

분석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가 어떤 지면에 실렸는지, 지면 특성을 ‘① 1면 ② 종합면 ③ 사회면 ④ 수도권면과 지방면 ⑤ 국제면 ⑥ 인물면 ⑦ 경제면 ⑧ 문화면 ⑨ 특집기획면 ⑩ 오피니언면 ⑪ 생활면 ⑫ 여론 및 독자면 ⑬ 별지-문화세션 ⑭ 별지-문화세션 외 등 14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두 번째로는 문화 저널리즘 관련 기사들의 특징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안으로, 관찰된 문화 기사들 속에서 발현된 ‘콘텐츠의 중심성’과 ‘문화에 대한 관점’, ‘비평·분석 기사 게재량’, ‘주제별 비중’ 등 네 개의 항목을 측정했다. ‘콘텐츠 중심성’은 분석 대상 기사가 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논의되는 콘텐츠의 역할이나 특징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지엽적이거나 표피적인 문화적 현상이나 가십 등을 다루고 있는지를 측정했다.¹⁰⁾ 예를 들면 문화 관련 기사들 속에서 콘텐츠 중심성의 경우, 작품성, 연기력, 공연연출 등의 작업에 관한 평가와 특성 그리고 진단 등 문화콘텐츠의 성격이나 역할과 관련된 내용과 관점은 ‘① 높다’로, 콘텐츠와 관련성이 적거나 미미한 내용, 즉 연기자의 사생활이나 동정, 행사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룬 경우는 ‘② 낮다’로 코딩했다. 또 기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을 ① 여가·오락으로서의 문화, ② 상품(광고)으로서의 문화, ③ 지식·교양으로서

10) 예컨대, 아이돌 현상의 경우 아이돌 음악의 장르적 특징과 혼종성, 기획과 매니지먼트적 측면, 전문 대중음 악비평가들의 평가와 전망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기사들을 콘텐츠의 중심성이 발현되는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반면에 아이돌 그룹에 관한 공연정보, 팬들의 반응을 일정한 진단과 관찰점의 개진이 결여된 채 제시하거나, 혹은 연예인 관련 단순 동정보도나 어부지기나 리사이클링 등의 방식으로 제시되는 기사들은 콘텐츠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했다.

의 문화, ④ 생활로서의 문화, ⑤ 기타, ⑥ 알 수 없음으로 차별화하여 분류했다.

이어 비평·분석 기사 게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사의 유형을 ① 스트레이트(단순 사실 보도), ② 기획/시리즈/탐방기/인터뷰, ③ 비평/리뷰(영화평, 연극평 등)/분석·해설로 분류하여 코딩했다. 다음으로 주제별 비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김진국, 2014; 박선영, 1998; 홍은희, 2012)들이 활용한 방식을 참고하여, 기사의 주제를 ① 공연·전시·미술·음악, ② 미디어·영화·대중문화, ③ 학술, ④ 여행·레저·음식·건강, ⑤ 문화일반·생활문화·전통문화, ⑥ 종교·건축·패션·미용·기타로 측정했다. 분석 대상 기사가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루었을 때에는 기사에서 초점이 맞추어진 특정 주제로 코딩했다. 만약 초점이 맞추어진 주제가 어떤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이 다루어진, 즉 기사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은 주제로 코딩했다.

마지막으로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고자는 ① 문화전문가·창작자, ② 문화전문가·비창작자, ③ 문화 외 전문가, ④ 수용자(독자, 관객 등), ⑤ 통신사(연합뉴스 등)로 분류하고 측정했다. 여기서 창작자는 공연자, 제작자, 작가 등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한편 '문화 전문가·비창작자'는 영화, 음악, 미술, 미디어 분야의 문화 비평가나 해당 분야 전공 교수나 박사급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했으며, '문화 외 전문가'는 광의의 문화 관련 교수집단을 제외한 다른 분야를 전공한 교수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한다. 수용자는 독자, 관객 등 문화를 수용 또는 향유하는 주제들을 말하며, 통신은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 뉴스통신사를 의미한다.

취재원은 간접 인용 취재원과 직접 인용 취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직접 인용 취재원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수행했다. 그러한 이유는 기사에 등장하는 직접 인용의 경우 해당 취재원이 제시하는 특정한 인식이나 판단 또는 프레임은 기사 속에서 특정한 문제의식이나 관점 등을 강조해서 부각시키므로, 직접 인용 취재원은 기사 구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Hertog & McLeod, 2003). 즉 특정 취재원을 직접 인용했다는 것은 언론이 평가하며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취재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tempel & Culbertson, 1984).

직접 인용 취재원은 먼저 기사 안에 몇 명의 직접 인용 취재원이 등장하는지를 관찰한 후에, 첫 번째 등장 직접 인용 취재원, 두 번째 등장 직접 인용 취재원, 세 번째 등장 직접 인용 취재원 각각에 대해 활용의 특성을 측정했다. 취재원 특성은 ① 공연자(영화 출연자, 피아노연주자, 무용가 등의 인물군) ② 제작자(감독, 스텝, 작가, 작곡자 등) ③ 비창작자 문화전문가(비평가, 문화 관련 학자와 연구자 등) ④ 문화와 관련 없는 전문가(변호사 등의

법조계 인물이나 문화와 관련이 적은 전공영역의 교수 등) ⑤ 수용자(관객/독자/시청자) ⑥ 기타로 측정했다. 이 때, 문화 공연자이면서 제작자인 경우 기사에서 제작자와 공연자 중 어떤 측면을 더 많이 다루었는지를 잣대로 판단해 코딩했다.

코딩은 두 명이 실시했으며, 연구자와 두 명의 코더는 정확한 분석유목의 설정을 위해 일련의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장시간의 토의를 거쳤다. 이후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훈련을 시행했다. 스카파이지수를 사용해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지면’, ‘지면특성’, ‘기고자’는 각각 1.00, ‘기사 유형’ 0.92, ‘주제’ 0.83, ‘콘텐츠 중심성’ 0.84, ‘기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 0.81, ‘직접 인용 취재원 수’ 0.92, ‘첫 번째 직접인용 취재원 특성’ 1.00, ‘두 번째 직접인용 취재원 특성’ 0.92, ‘세 번째 직접 인용 취재원 특성’ 0.98 등으로, 모든 항목이 0.81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4. 연구 결과

1) 문화 기사의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

10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 기사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문화 기사의 게재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문화 기사가 문화면 이외의 지면에 게재된 비율에 어떤 변화가 관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 문화 기사의 게재량 변화

문화 관련 기사의 게재량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신문 모두 현재(2013년~2014년)의 문화 기사의 양이 10년 전(2003~2004년)보다 적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전체 발행지면 수는 2003~2004년 하루 평균 53.67면, 2013년~2014년 하루 평균 54.67면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1면정도 늘어났고, 중앙일보의 경우 전체 발행지면 수는 2003~2004년 하루 평균 48.17면, 2013년~2014년 하루 평균 56면으로 10년 전보다 7.83면정도 늘어났다. 발행지면 수가 2003~2004년 하루 평균 36.42면에서 2013년~2014년 하루 평균 33면으로 3.42면 정도 줄어든 한겨레를 고려하더라도 세 신문의 하루 평균 지면 수는 1.81면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지면은 늘어난 데 반해, <표 1>이 보여주듯이 광의의 문화 관련 기사의 전체

계재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측면을 알 수 있다. 즉, 신문지면 내에서 문화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 기사가 지면 전체의 증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선영(1999)의 연구에서 한국 언론의 문화 기사는 지면이 확장되면서 급격히 늘어났음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지면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문화 기사의 건수 역시 줄어들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면과 문화 관련 기사들의 중요성에 의해 기사가 작성·배치되기도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저널리즘의 관행상 관심이 보다 큰 핵심적인 영역의 기사들에 관한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할당되는 지면 분량에 따라 그리고 영역과 주제와 관련된 언론사 내부의 선호도나 편집과정에게 추구되는 중요성에 의해서 문화 관련 기사들이 후순위로 지면을 배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후속연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통상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사회 내 대중문화의 영역 확장이나 문화 관련 지식담론들의 증가가 문화면을 중심으로 지면과 제도적인 관심의 확장을 가져왔다면, 지난 10여 년간 문화영역에 관한 언론의 보도방식이나 제도적인 관심이 부분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언론제도 내에서도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크게 심화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이나 고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제로서 문화면의 관리와 문화 관련 기사들의 생산이 언론사 내부의 기자 집단과 특히 경영진에 의해 충분한 가치나 긴요한 역할을 고려 받고 있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추정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¹¹⁾

표 1. 신문별 연도별 문화 기사 수 빈도분석 (단위: 건)

연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전체
2003~2004	510	270	300	1,080
2013~2014	306	223	222	751

세 신문 발행 일일 평균 지면 수는 2003~2004년 46.08면에서 2013년~2014년 47.89면으로 1.81면이 늘어났음.

11) 이러한 논점과 관련하여, 김세은·이기형·김경희(2014)의 연구는, 문화부 기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통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들 기자들이 사내에서 느끼는 제도적인 관심과 지원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음과,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등의 핵심부서와 비교할 때, 인력의 충원과 연수기회, 그리고 지면 배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측면을 기자들의 체험과 관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2) 문화면 이외 문화 관련 기사들의 지면 게재 비율의 변화

분석 대상 중 오피니언/독자란/별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외하고 본지에 게재된 문화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문화면 이외의 지면에 -1면, 종합면, 정치와 사회면 등- 게재된 비율을 분석해보았다. 2003~2004년에는 분석 대상 기사의 50.4%가 문화면 이외의 종합면 등 타 지면에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2013~2014년에는 분석 대상 기사의 43.6%만이 문화면 이외의 지면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chi^2=4.333$ $df=1$ $p < .05$)하며, 10년 전보다 신문지면 내에서 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이 일정 부분 축소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사례로 수도권/지방면에 문화 관련 기사가 게재된 비중이 2003~2004년에는 124건(21.91%)이었으나, 2013~2014년에는 21건(5.04%)밖에 되지 않았다.

문화 기사가 1면과 문화면 이외의 지면에 게재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다른 분야나 주제 관련 기사들의 생산과 비교했을 때, 문화 관련 기사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문화 기사의 '뉴스가치'와 필요성 또는 독자들을 견인하는 자원으로서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이 사내에서 재고되거나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할 때 이러한 상황을 부분적으로라도 타개하거나 보완할 내부의 관심들이 충분히 모색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 문화 관련 기사들의 게재량 감소와 함께, 문화 기사의 위상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정체되고 있음을 예시한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깨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문화면이 아닌 다른 지면을 통한 문화 관련 기사와 칼럼 혹은 비평문 등의 배치 등 대안적이거나 실험적인 시도가 능동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시사해준다.¹³⁾

동시에 <표 2>가 시사점을 주듯이 문화면의 공간을 매개로 제공되는 기사는 오히려 늘어난 추세를 보인다. 이는 문화현상과 트렌드 변화를 담아내며 문화 영역 내 하위 장르들을 포함하는 문화면으로 문화 저널리즘의 작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12) 연구진은 문화면의 위상 변화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1면과 같이 의미 있는 지면에 문화 관련 기사가 얼마나 게재됐느냐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면 게재 기사를 측정했으나, 문화 기사가 1면에 게재된 경우는 2003~2004년 6건, 2013~2014년 2건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이 분석을 애초의 기획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13) 물론 내용분석의 결과만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과 판단을 '단언적'으로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이 글의 결론과 토론 부에서 좀 더 상세한 진단과 추정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상당수 언론학자들이 짚어냈듯이, 문화 저널리즘에 대한 언론사 내의 집합적인 관점이나 평가 혹은 이를 고양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지면의 구성과 기사의 생산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반영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과 현황에 개입하는 복수의 요인들에 관해서는 이 글의 결론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문화 기사의 타지면 게재비율의 변화 교차분석

단위: 건(%)

지면특성	2003~2004	2013~2014
1면 종합면 등 문화 지면 외 게재 기사 ¹⁴⁾	285 (50.4)	182 (43.6)
문화면 게재 기사	281 (49.6)	235 (56.4)
전체	566 (100.0)	417 (100.0)

$$\chi^2=4.333 \text{ df}=1 \text{ } p < .05$$

2) 문화 관련 기사들의 구성과 특징 변화에 대한 분석

종합일간지 부문에서 문화 저널리즘의 구성적인 특성과 주제 및 양식 측면에서 기사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화 기사에서 나타난 '콘텐츠의 중심성'과 '문화에 대한 관점', '비평·분석 기사 게재량', '주제별 비중' 등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1) 콘텐츠 중심성의 변화

콘텐츠의 중심성은 분석 대상 기사들이 다양한 문화현상과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즉, 콘텐츠와는 크게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주변적인 현상이나 가벼운 가십 또는 '잡정보' 등을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정한 항목이다. 분석 결과, 작품성, 연기력, 공연연출 등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이나 취재의 대상에 관한 일정한 평가와 진단을 담고 있어서 콘텐츠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 기사는 2003~2004년에는 분석 대상 기사의 60.7%였지만, 2013년~2014년에는 분석 대상 기사의 43.0%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55.978 \text{ df}=1 \text{ } p < .001$).

10년 전에 비해, 문화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보도된 기사가 10년 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 2013~2014년에는 콘텐츠 중심성이 높은 기사(43.0%)보다 콘텐츠 중심성이 낮은 기사(57.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관련 기사들이 문화 콘텐츠와 관련성이 없는 주변적인 현상이나 연예인의 동정과 사생활 등의 기타 사안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하단의 토론 부에서 더 다루겠지만, 주요 일간지의 지면에서 이른바 '연예 저널리즘' 또는 연예와 오락 그리고 스타들에 관한 동정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늘어

14) 오피니언/독자란/별지는 제외했음.

났음을 엿보게 해준다. 즉 광의의 연예 저널리즘과 관련된 독자들의 관심과 취향의 표출이 나 온라인 매체들이 집중하는 스타와 셀러브리티 등의 특정한 문화콘텐츠나 가시적인 문화현상에 관한 집중적인 취재와 과도한 재현 그리고 매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유발하는 일련의 상업적인 요인들과 경쟁의 영향이 주류언론의 보도방식에도 확연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상당부분 가능하다고 본다(남재일, 2013 참고). 또한 이는 언론사의 문화 담당 기자들이 이러한 제도 안팎의 경쟁과 변화된 환경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수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¹⁵⁾

이와 관련하여 ‘연예 저널리즘’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탐구한 남재일과 박재영(2013)의 연구는 온라인이나 군소 매체들 외에 종합일간지들도 연예인의 활동상과 동정을 가십화하며, 이러한 측면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연예 관련 보도의 질을 능동적으로 ‘정문화’하고 ‘고급화’하기보다는, 대중의 주목도를 고려한 소재차원의 활용에 주로 주력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 기사(분석 대상 2003~2004년 총 128건, 2013~2014년 총 82건) 중 연예인을 다룬 비중은 2003~2004년 분석 대상의 35.9%에서 2013~2014년 분석 대상의 48.8%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문화 기사에서의 소재 변화에 대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chi^2=6.212$ $df=4$ $p=.184$), 연예인 관련 보도가 10년 전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 관련 기사들 속의 관점 변화

문화 관련 기사들이 문화현상이나 문화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기사와 관점을 견지했는지를 고려하고 10년 전과 현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의의 ‘문화에 대한 관점’에 관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2003~2004년 분석 기사에서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과 2013~2014년 기사에서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chi^2=61.346$ $df=4$ $p<.001$).

15) 남재일(2013)은 ‘연예 저널리즘’의 현황과 효과를 논하는 기고문에서 “낮 뜨거운 제목, 기본적인 정보도 누락된 부실한 스트레이트 기사, 최소한의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의아한 수많은 연예기사들은 일상적인 저널리즘의 현실이 됐다. 선정성은 포털에 공급되는 모든 영역의 뉴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연예뉴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털이 뉴스 공급의 중심이 되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연예뉴스의 공급과 소비는 급격히 늘어났다. 뉴스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언론윤리 교육이나 기사작성 훈련이 안된 기자들이 급조해서 써내는 연예기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76-77쪽). 주요 일간지의 경우에도 이러한 확장된 연예 저널리즘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타개할 방안이나 대안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표 3. 문화 기사의 콘텐츠 중심성 변화 교차분석

단위: 건(%)

콘텐츠 중심성	2003~2004	2013~2014
높음	656 (60.7)	323 (43.0)
낮음	424 (39.3)	428 (57.0)
전체	1080 (100.0)	751 (100.0)

$$\chi^2=55.978 \quad df=1 \quad p<.001$$

그러나 카이스퀘어 분석만으로는 어떤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명목척도로 측정된 항목들을 각각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여 t-검증분석¹⁶⁾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여가·오락으로서의 문화'와 '지식·교양으로서의 문화'로 접근한 기사들은 각각 2013~2014년보다 2003~2004년에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상품(광고)로서의 문화'와 '생활로서의 문화'로 접근한 기사들은 각각 2003~2004년보다 2013~2014년에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 저널리즘에서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지식·교양' 또는 '여가·오락'으로서 문화에 접근하는 관점의 기사들은 줄어들고, '상품(광고)'과 '생활'로서 문화에 접근하는 관점의 기사들이 늘어났음을 엿볼 수 있다. 부연하자면, 이는 종합일간지의 경우에도 주요 문화현상이나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리뷰와 해석, 주장과 트렌드의 분석 등이 포함되거나 이들 현상과 관련된 지적·교양적인 측면을 심화시켜 조명하는 기사들 보다, 상업성이 직간접적으로 발현되는 홍보나 광고성 기사들 그리고 단순 정보전달 방식의 기사들이 늘어난 측면을 시사해준다.

또한 대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변화하는 트렌드와 취향을 다루는 기사들의 경우, 이들 주제들에 관한 독자들의 확장된 관심을 기사들이 동적으로 혹은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상당히 있지만, 대중이나 전문가 집단이 주목하는 문화현상에 대한 및 만한 기술을 넘어서 예리하고 전문적인 관점이 투사되는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혹은

16) 카이스퀘어분석의 경우 어떤 항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별로 t-검증분석을 실시했다. '오락으로서의 문화' 항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오락으로서의 문화'를 다룬 경우는 1, '오락으로서의 문화'를 다루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리코딩한 후 2003~2004년과 2013~2014년 사이에 '오락으로서의 문화'를 다룬 기사 수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시도했다.

그러한 관심이 투영된 취재와 기사의 생산이 주기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않은- 경향이 존재하는 측면을 일부 드러내기도 한다.¹⁷⁾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인지도가 있는 중견 기자인 이희용(2007, 119쪽)은 ‘포털 수렁에 빠진 연예 저널리즘’이라는 기고문에서, “종합일간지에서 [과거에는] 좀처럼 취급되지 않던 연예인들의 가십성 기사들이 ‘버젓이’ 지면을 차지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박스에는 주요기사와 많이 읽은 기사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이미 2007년에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잣대로 보면 [포털이 주도하는 뉴스의 생산에서] 뉴스가치가 떨어지고 팩트도 불확실한 함량미달의 기사 투성이다. 연예매니지먼트사나 영화홍보사의 보도 자료를 베꼈음직한 노골적인 홍보기사도 곳곳에 눈에 띄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끌어보려는 이른바 ‘낚시형 기사’도 적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기도 한다(120쪽).

이러한 추세는 그의 문제제기가 등장한 지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신문과 포털 간의 치열한 경쟁과 후자의 강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종합일간지의 문화면 또한 독자적인 자율성이나 질적으로 심화된 콘텐츠가 부각되는 기사들의 생산에 주력하거나 고급화 혹은 전문화 등의 차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일정한 ‘순응’과 ‘대세를 따르는’ 수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3) 비평·분석 기사 게재량의 변화

분석 대상 중 오피니언/독자란/별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외하고 본지에 게재된 문화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문화면 이외의 지면-1면, 종합면, 정치와 사회면 등-에 게재된 비율을 분석해보았다. 2003~2004년에는 분석 대상 기사의 50.4%가 문화면 이외의 종합면 등

17) 물론 이러한 측면은 내용분석만으로 상세한 함의나 방향성의 전모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이는 언론의 행태에 관한 제도분석이나 문화 관련 주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및 기사생산의 변화상과 압박을 내부 저널리스트들의 현실 판단과 체험을 중심으로 - 즉 생산연구나 관행 연구 등으로 - 보다 근접해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되 상품과 광고성 기사들이 늘어난 측면이 시사하는 논점이 적지 않으며, 지식과 교양의 측면을 다루는 기사들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은 최소한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이나 방향성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보다 정련되고 활성화된 노력들이 투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측면은 이 연구가 참고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본문의 2장에서 설정·강조한 문화 저널리즘의 주요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해석적인’ 그리고 담론생산 기능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한편 광의의 생활과 관련된 - 대중이 소구할 수 있는 생활이나 소비 관련 정보를 담은 - 기사들의 증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현재 관찰된 내용으로는 일정한 추정만이 가능해 보인다. 즉 생활문화에 밀착한 정보의 제시가 문화 관련 기자 집단에 의해 필요성이나 주제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관심과 대중적인 소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문화 관련 지면의 분화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문화에 대한 관점 변화 교차분석

단위: 건(%)

문화에 대한 관점	2003~2004	2013~2014	2003~2004 평균 (표준편차)	2013~2014 평균 (표준편차)	t-value
여가·오락으로서의 문화	488 (45.2)	288 (38.3)	.45 (.498)	.38 (.487)	2.917**
상품(광고)로서의 문화	49 (4.5)	81 (10.8)	.09 (.416)	.22 (.621)	-5.155***
지식·교양으로서의 문화	458 (42.4)	275 (36.6)	1.27 (1.48)	1.10 (.475)	2.490*
생활로서의 문화	79 (7.3)	80 (10.7)	.29 (1.042)	.43 (1.235)	-2.497*
기타/알 수 없음	6 (0.6)	27 (3.6)	-	-	-
총계	1080 (100.0)	751 (100.0)	* $p < .05$, ** $p < .005$, *** $p < .001$		
	$\chi^2=61.346$ $df=4$ $p < .001$				

타 지면에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2013~2014년에는 분석 대상 기사의 43.6%만이 문화면 이외의 지면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chi^2=4.333$ $df=1$ $p < .05$)하며, 10년 전보다 신문지면 내에서 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이 일정 부분 축소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사례로 수도권/지방면에 문화 관련 기사가 게재된 비중이 2003~2004년에는 124건(21.91%)이었으나, 2013~2014년에는 21건(5.04%)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은 앞서 제시한 관찰과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과거에 비해 종합일간지의 지면에서 구성과 장르 측면의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는 문화현상이나 이슈 관련 탐방기와 연작 취재, 그리고 주요 문화생산자 집단과의 인터뷰 등은 늘어났지만, 특정한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진단과 해석 그리고 비평이 발현되는 문화 관련 기사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측면을 드러낸다.

이는 먼저 취재와 기사 작성의 방식 측면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만,¹⁹⁾

18) 연구진은 문화면의 위상 변화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1면과 같이 의미 있는 지면에 문화관련 기사가 얼마나 게재됐느냐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면 게재 기사를 측정했으나, 문화 기사가 1면에 게재된 경우는 2003~2004년 6건, 2013~2014년 2건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이 분석을 애초의 기획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19)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대중적인 관심을 받거나 주목을 받게 된 특정 문화인이나 연예인과의 대담이나, '인물 스케치' 혹은 특정 문화현장을 대상으로 삼는 현장취재기 등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사생산에서도 과거에 비해 이러한 방식의 취재와 구성을 녹여낸 기사들이 일정 부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박선영(1998)의 선행연구에서도 문화기사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터뷰 기사가 조사 당시 과거에 비해 늘어났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중문화 관련 기사와 특히 연예기사들이 상당히 늘어난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언론의 문화면 관련 지면구성과 생산되는 기사들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발현되는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가 더

표 5. 기사 유형별 게재량 변화 교차분석

단위: 건(%)

기사의 유형	2003~2004	2013~2014	2003~2004 평균 (표준편차)	2013~2014 평균 (표준편차)	t-value
스트레이트 (단순사실 보도)	612 (62.6)	420 (64.3)	1.22 (1.389)	1.23 (1.358)	-.061
기획/시리즈/탐방기/인터뷰	181 (18.5)	148 (22.7)	.19 (.389)	.23 (.419)	-2.052*
비평·리뷰/분석·해설	185 (18.9)	85 (13.0)	.19 (.392)	.13 (.337)	3.148**
총 계	978 (100.0)	653 (100.0)	* $p < .05$, ** $p < .005$		
	$\chi^2 = 11.775$ $df = 2$ $p < .005$				

분석에서 '칼럼/사설/기타'에 해당하는 기사는 제외했음.

언론사 내부의 인식이나 대안의 모색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복안과 생산적인 대응 또는 혁신이 조직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못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의식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김세은·이기형·김경희(2014)의 연구도, 서울 소재 종합 일간지 문화부 소속 기자 집단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선과 질적 변환을 위한 언론사 내부의 인식이나, 문화 영역을 전담하는 전문기자나 기존의 문화부 인력의 재교육이나 지원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고려가 대안적으로 모색되고 있지 못하며, 정치부나 사회부 등과 비교할 때 문화부의 활동이 상당부분 '정체'되고 있는- 동시에 내부 주체들이 '동요'하고 있는- 현실을 밝혀낸 바 있다.

(4) 주제별 비중의 변화

주제의 다양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2003~2004년 기사의 주제와 2013~2014년 기사의 주제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chi^2 = 22.154$ $df = 5$ $p < .001$.) 이어 어떤 주제에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목 척도로 측정된 항목들을 각각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여 t-검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특히 '학술' 관련 주제들은 지금(2013~2014년)보다 10년 전(2003~2004년)에 더 많이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여행·레저·음식·건강', '문화일반·생활문화·전통문화', '종교·건축·패션·미용·기타'는 2013~2014년의 기

필요한 주제이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확장된 대중문화의 역할과 위상이 제도언론에 주는 영향들,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지면 구성 혹은 '메꾸기'의 필요성 등이 맞물리면서 구현된 측면으로 파악된다.

표 6. '주제별 비중'의 변화 교차분석

단위: 건(%)

'주제별 비중'의 변화	2003~2004	2013~2014	2003~2004 평균 (표준편차)	2013~2014 평균 (표준편차)	t-value
공연·전시·미술·음악	172 (15.9)	127 (16.9)	.45 (.498)	.38 (.487)	2.917**
미디어·영화·대중문화	317 (29.4)	197 (26.2)	.09 (.416)	.22 (.621)	-5.155***
학술	271 (25.1)	141 (18.8)	1.27 (1.48)	1.10 (.475)	2.490*
여행·레저·음식·건강	92 (8.5)	76 (10.1)	.09 (.28)	.10 (.30)	-1.167
문화일반·생활문화·전통문화	96 (8.9)	73 (9.7)	.29 (1.042)	.43 (1.235)	-2.497*
종교·건축·패션·미용·기타	132 (12.2)	137 (18.2)	.12 (.33)	.18 (.39)	-3.590***
총계	1080 (100.0)	751 (100.0)	* $p < .05$, ** $p < .005$, *** $p < .001$		
	$\chi^2=22.154$ $df=5$ $p<.001$				

사들이 2003~2004년의 기사들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문화 저널리즘의 주요한 축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학술'과 지식생산 관련 분야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대중문화와 더불어 여행, 패션, 음식, 생활문화 등의 '대중적'으로 소구되는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관련 주제들이 일정 부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측면 또한 앞서 제시한-동시에 아직은 심화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에 추정 단계에 있는-관찰과 궤를 일정 부분 함께 한다. 종합일간지의 문화부가 다루는 지식과 학술 부문의 기사의 생산이 줄어들거나 정체되고 있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큰 매체와 영상 그리고 공연과 전시 등의 측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일부 늘어나거나 큰 폭으로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동시에 그 외의 보다 다채로운 주제들을 다루는 문화 관련 기사들의 총

20)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기사들의 함의와 질에 관한 보다 상세한 텍스트 분석이나 문화면의 지면 분석, 문화 부 기자들의 관행을 생산연구 등으로 진단하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지상파와 케이블 영역의 취향과 소비, 문화 트렌드 등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컨대 '메이크 오버' 프로그램이나 여행과 취미, 패션 등을 다루는 매거진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크게 늘어난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일간지들의 경우에도 문화면과 특히 주말판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기사와 특집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생산과 관련하여, 일상과 소비 영역에 관한 독자들의 관심을 고려한 언론의 관심과 상업성의 추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 보인다. 참고로 텔레비전 등의 매체가 수용자의 이용행태에 미치는 주요 변수의 하나로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한 경험연구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일간지를 포함한 언론이 다루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과 주제들의 편재나 함의 등을 체계적으로 혹은 사례분석 등으로 집약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은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심미선·김은미·이준웅, 2008 참고).

량은 확연히 줄어든 바 있으며, 주제의 다양성에서도 심대한 변화나 새로운 기획이 주로 간헐적으로 시도되지만, 주도적으로 모색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대중문화가 일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혹은 상업적인 함의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이러한 측면에 연동하는 대응이나 집합적인 고려가 종합일간지의 지면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문화면을 중심으로 학술영역의 주요 쟁점이나 지식 생산에서 주목할 작업들에 관한 소개, 나아가 이를 넘어서 제시되는 심화된 논의와 비평작업이 둔화된 점은 문제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이는 문화면이 주요한 학술적인 동향이나 쟁점을 충분히 혹은 기민하게 매개하거나 진단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결과 문화 저널리즘의 긴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교양과 지식생산영역 내 일고 있는 변화와 쟁점 그리고 함의 등의—때로는 대중적인 선호도나 관심과 종종 분리되기도 하는—공공적인 관심사를 저널리즘이 효과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며, 관련 활동상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 활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

다음으로, 문화 관련 주제나 이슈들에 관한 관점과 비평, 제언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의 활용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1) 기고자의 변화

기고자 분석에 따르면, 창작자로 분류되는 문화전문가와 비창작자 집단이면서 문화현상이나 관련 이슈에 전문가로 기고한 글이 신문에 실린 빈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 외 전문직 기고자는 10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에, 독자와 관객 등 수용자 영역 내의 기고자와 통신사의 글은 통계적으로

21)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식생산의 단면을 특집으로 풀어내는 언론의 작업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경향신문의 경우, 〈파워라이터〉(2011년)와 〈뉴 파워라이터〉(2013년) 등의 연재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상당한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으며 지식 장에서도 주목받는 주요 저자들의 기고문을 싣는 기획을 추구한 바 있으며, 이 기획에 참여했던 문화부 기자들이 저자들과 함께 연재된 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도 있다. 한편 문화부문 ‘전문 저널리스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들 가운데 고명섭이나 고종석, 최재봉(2004) 등과 같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당하며, 현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분석 작업과 지식 및 비평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일부 존재한다. 한편 대중음악 영역을 다루는 서정민 그리고 임희운 기자 또한 세밀한 글쓰기와 전문적인 안목이 발현되는 진단을 제시함으로써, 상당한 평가와 지명도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종합일간지 내부에서 이들의 활동을 이어갈 ‘후속세대’로서 문화 전문기자들의 관리와 교육 그리고 지원책 등은 크게 모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표 7〉). 이는 총 건수가 10년 전 164건에서 104건으로 상당수 줄어든 가운데, 문화 관련 기사에서 일반 수용자나 통신사의 기사를 활용하거나 받아쓰는 경향이 상당히 감소하고, 좀 더 전문성을 지닌 기고자들의 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관행화된 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활용 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기고자와 관찰자 집단의 참여가 일부 늘어나고 있음을 엿보게 해준다.

또 가장 많은 기고자였던 창작자-문화전문가 집단의 직업 분포에서도 10년 전과 현재 간의 차이가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창작자인 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문학/만화작가'가 2003~2004년 분석 기사(43건)의 79.1%, 2013~2014년 분석 기사(35건)의 71.4%를 차지했으며, 특히 광의의 문화 관련 작가들이 기고한 글이 다수를 점유했다. 작가집단의 경우, 글쓰기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이들이기에 이러한 활용의 방식은 상당부분 이해가 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대중문화나 하위문화 영역의 비평가 집단이나 문화 활동가와 기존의 예술 영역 내 음악가나 화가, 무용가 등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예술가 집단의 기고가 실릴 수 있도록 기고자들을 발굴하고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고려는 광의의 문화현상에 대한 관찰이나 관점과 비평적 진단의 제기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과 주제에 치우치지 않으며 일간지 내 문화면 구성과 기획 측면의 다양성의 재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측면을 일깨워준다.

문화 외 전문직 기고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뤘고, 그밖에 기업인과 교수직 이외의 교육계 전문직 종사자들이 활용되었으며, 의료인, 법조인, 정치인, 정부관계자들이 매우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수용자(독자/관객)의 기고가 늘었다는 측면 이외에는, 기고자의 직업적 특성과 구성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기고자 활용에서 언론제도 내 오래되고 확립된 관행이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접 인용 취재원의 변화

직접 인용 취재원의 변화는 직접 인용 취재원의 수와 직접 인용 취재원의 직업 등 두 개의 항목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먼저, 직접 인용 취재원은 기사에서는 평균 0.98명이 등장해서, 2003~2004년 분석 기사의 평균 0.56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간접 인용 취재원까지 포함했을 경우 취재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직접 인용 취재원의 수만 봤을 경우 문화 관련 기사에서는 평균 1명의 취재원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취재원의 수는 10년 전보다는 소수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문화 기사의 특성 상 여러 명의 취재원이 등장하는 기사가 반드시 더 '양질'의 기사라

표 7. 기고자의 변화 교차분석

단위: 건(%)

기고자	2003~2004	2013~2014	2003~2004 평균 (표준편차)	2013~2014 평균 (표준편차)	t-value
문화전문가-창작자	43 (26.2)	35 (33.7)	4.96 (4.37)	4.63 (4.35)	.882
문화전문가비창작자	47 (28.7)	32 (30.8)	.29 (.45)	.31 (.46)	-.368
문화 외 전문가	32 (19.5)	32 (30.8)	.20 (.40)	.31 (.46)	-2.116*
수용자(독자, 관객 등)	15 (9.1)	3 (2.9)	.09 (.29)	.03 (.17)	2.003*
통신사(연합뉴스 등)	27 (16.5)	2 (1.9)	.16 (.37)	.02 (.14)	3.821**
총계	164 (100.0)	104 (100.0)	* $p < .05$, ** $p < .001$		
	$\chi^2=20.832$ $df=4$ $p < .001$				

고 예단할 수만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사당 취재원이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원 활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개선할 소지가 상당한 언론의 관행이 적극적인 대안추구의 의지가 결여된 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²²⁾

또한 문화 관련 기사가 직접취재나 현장 탐방 등에 기반을 둔 기사들도 있지만, 단순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여전히 많으며, 논쟁적이거나 심층성을 구현하는 기사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자의 취재를 중심으로 취재원의 관찰이나 해설, 의견을 짧은 인용 정도로 활용하는 차원의 기사를 내보내는 오래된 관행 또한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취재원을 발굴하고 복수의 관점이나 의견을 기사에 담으려는 시도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생산적인 관점과 이견을 매개하는 등의 문화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정련시키기 위해서 적극 시도해야 할 부분이라는 관찰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2) 우리나라 언론은 취재원 활용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이 밝혀진 바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1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사 1건당 평균 취재원 수가 미국 신문이 10.1명인 반면 한국은 1.8명에 불과했고 익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미국은 38%인 반면 한국은 61%나 되었다(오수정, 2001.11).

표 8. 직접 인용 취재원의 수 t-검정분석

직접 인용 취재원의 수	2003~2004	2013~2014	t-value
평균	.56	.98	-7.816*
표준편차	.99	1.35	

* $p < .001$

이어서 직접 인용 취재원으로 등장한 주체들의 직업적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직접 인용 취재원의 코딩은 첫 번째 등장 취재원, 두 번째 등장 취재원, 세 번째 등장 취재원의 직업을 각각 분석한 뒤, 다중 응답 분석을 실시했다. 다중 응답 분석이라 연도별 데이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빈도 분석을 통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직접 인용 취재원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직업으로는 감독, 스텝, 작가, 작곡자 등을 포함하는 제작자 집단으로 2003~2004년의 경우 직접 인용 취재원의 30.4%를, 2013~2014년의 경우는 직접 인용 취재원의 24.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003~2004년에는 비평가, 문화 관련 분야의 학자와 연구자 등 비창작 문화 전문가가 직접 인용 취재원의 19.7%를, 영화출연자, 연주자, 무용가 등 공연 출연자가 직접 인용 취재원의 15.8%를 차지했으며, 2013년~2014년에는 공연 출연자(16.6%)와 비창작 문화 전문가(16.4%)가 비슷하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창작 문화 전문가와 공연자의 등장 빈도의 순위가 10년 전과 비교하여 2003~2004년에는 비창작 문화 전문가가 2위, 2013~2014년에는 공연자가 2위로 집계됨으로써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10년 전이나 현재나 공연자와 비창작 문화 전문가의 등장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9. 신문사별 문화 기사 직접인용 취재원의 특성 변화 교차분석(3개 복수 코딩) 단위: 건(%)

취재원 특성	2003~2004	2013~2014
공연자(영화 출연자, 피아노연주자, 무용가 등 예술가 집단)	81 (15.8)	91 (16.6)
제작자(감독, 스텝, 작가(문학, 드라마), 미술, 작곡자 등)	156 (30.4)	133 (24.3)
비창작자 문화전문가(비평가, 문화 관련 학자 등)	101 (19.7)	90 (16.4)
문화와 관련 없는 전문가(변호사, 문화영역이 아닌 기타 영역 전공 교수 등)	144 (28.1)	153 (27.9)
수용자(관객/독자/시청자)	31 (6.0)	81 (14.8)
소계	513 (100.0)	548 (100.0)
총계	1,061 (100.0)	

그 외에 문화와 전공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적은 분야의 교수나 전문직 종사자가 직접 인용된 경우도 2003~2004년 직접 인용 취재원의 28.1%, 2013~2014년의 직접 인용 취재원의 27.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자들이 보이는 확립된 관행의 재생산과 더불어 발상의 전환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과 대안의 추구에도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한 취재방식의 단면을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종합일간지의 경우에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며 더욱 진전되고 예리한 관찰과 관점 또는 이견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취재원을 발굴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발로 뛰는’ 취재와 저변을 보다 넓히려는 섭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기자들이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주요 접촉과 섭외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 두 마디의 의견을 구해 ‘구색 맞추기’ 정도로 끼워 넣는 기사 작성의 관습성이나 인용된 내용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큰 변화나 개선 없이 재연되고 있는—측면도 감지된다.

10년 전과 비교하여 직접 인용 취재원과 관련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면, 그것은 독자, 관객, 시청자 등 수용자의 직접 인용이 늘었다는 점이다. 2003~2004년 직접 인용 취재원의 6.0%만이 수용자였던 반면, 2013~2014년의 직접 인용 취재원의 14.8%가 수용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10년 전과 비교할 때 직접 인용 취재원의 특성에서는 독자의 직접 인용이 늘어났다는 측면 외에 크게 주목할 만한 동시에 상당한 현실적인 함의를 주는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수용자를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정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거시적인 차원의 문화영역에서 수용자 집단이나 팬덤 등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일부 확장되었으며, 이들 주체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또한 저널리즘이나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매우 활발한 팬덤이나 특정한 하위문화와 ‘취향의 공동체들’의 부상, 그리고 소비문화의 동향과 관련된 수용자들의 복합적인 취향과 관심의 표출 그리고 활동상이 주는 문화적인 그리고 상업적인 함의가 적지 않기에, 저널리즘이 이러한 측면에 능동적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마땅히 존재한다(이동연 외, 2010; 주창윤, 2015 참고).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취재원의 섭외와 활용이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진단과 고려 그리고 대안적인 관행의 모색이 결여된 ‘대중추수주의’의 문제점이나(이동연, 2010; 이상길, 2013; 이택광, 2011 참고), 일관되고 저변을 확대하는 취재와 관행 구성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취재원을 단순 대치하거나 손쉬운 실행의 차원에서 수용자들을 ‘선택적으로’ 섭외하는 문제점에 관한 자성과 변화의 추구 또한 상당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10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 기사의 위상과 종합일간지 영역에서 추구되는 문화 저널리즘의 구현 및 특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문화 저널리즘의 주요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기고자와 직접 인용 취재원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신문 지면에서 문화면의 위상은 상당히 정체되거나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체 신문의 지면은 늘어난 데 반해 문화 관련 기사의 게재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문화면 이외의 종합면 등 타 지면에 기사가 게재된 비율도 줄어들면서 문화 관련 기사는 문화면과 별지로 한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확장된 역할과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지되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과는 달리, 제도언론 영역의 문화 저널리즘은 외연과 내적인 구성 그리고 역할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축되어 가시적인 변화의 모색도 충분히 추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김세은·이기형·김경희, 2014; 이상길, 2013; 이정환 외, 2015 참고).

이러한 문화 저널리즘의 위축과 정체는 문화 관련 기사의 질을 집합적으로 높이는 데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기도 한다. 작품성, 연기력, 공연 연출, 심미성과 사회문화적 의의나 효과 등 문화 및 예술콘텐츠의 특성과 내용 측면의 차별성이나 함의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콘텐츠 중심성'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고, 2013~2014년 기사만 보더라도 콘텐츠 중심성이 높은 기사나 리뷰와 해석 등이 반영된 기사들보다 콘텐츠 중심성이 낮은 기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관련 기사들이 문화 콘텐츠의 함의나 사회적인 효과를 진단하고 일정한 분석적인 깊이를 추구하면서 해석해내기보다는, 관련성이 상당히 적은 주변적인 현상이나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동정과 근황, 혹은 행사 프레임이 주로 발현되는 기사 등의 기타 사안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측면이 관찰되는 것이다.

게다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지식·교양' 또는 '여가·오락'으로서 문화에 접근하는 관점의 기사들은 줄어들고, '상품(광고)'나 '생활'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문화현상에 접근하는 관점을 포함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또한 주목되는 문화적 현상이나 특정한 성취를 거둔 작업에 대한 비평과 리뷰 혹은 리뷰와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복수로 담아내는 기사들도 10년 전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으며, 문화 저널리즘의 중요한 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술과 교양, 그리고 지식영역과 관련된 보도는 줄어들고, 대중문화와 여행,

패션 등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주제들이 늘어난 바 있다.²³⁾

문화 저널리즘의 위상과 구성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문화 저널리즘은 양질의 문화 관련 교양과 지식을 쌓는 데 기여하기 어렵거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관성화된 기사의 생산에 상당 부분 집중되고 있으며, 케이블과 방송영역 내 경쟁매체들과 비교할 때에도 보다 새롭고 차별성을 구현하는 문화콘텐츠의 기획은 오히려 일정 부분 퇴조하고 있거나 제도적인 실행상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기고자는 문화 저널리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이자 참여자이기도 하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현상과 이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연구진은 기고자의 활용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독자와 관객을 포함하는 수용자 집단의 기고가 일부 줄어들었다는 것 이외에, 기고자 집단의 직업적 특성이나 구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나 대안의 추구는 관찰되지 않았다.

기고자의 선정과 활용에서 언론사 내 오래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완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안이나 개선책의 모색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기고자를 차지한 창작자 집단의 참여 정도도 10년 전과 현재의 차이가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앞서 논했듯이, 다양한 예술가 집단이나 문화현상을 독자적으로 혹은 예리하게 풀어내는 새롭고 역량을 갖춘 주체들의 목소리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집합적인 노력과 자성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것이다.

직접 인용 취재원 역시 10년 전과 비교하여 독자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이 일부 늘어났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제작자와, 공연자, 비창작 문화 전문가, 문화와 관련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 등이 각각 직접 인용된 빈도는 2003~2004년의 기사에서나 현재(2013~2014년)의 기사에서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의 섭외와 활용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10년 전과 현재의 문화현상은 상당한 변화를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고자나 취재

23) 최근 몇 년간 종합일간지의 지면에서 주말 판을 일종의 '잡지형태'로 구성하는 대안적인 기획이 시도되기도 한다. 독자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휴일 활동을 고려하면서 주말 판은 문화와 연예, 오락, 스포츠, 레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로 다채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하며, 열독률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시원한 편집과 사진 이미지 등을 배치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가벼운' 읽을거리를 다루던 관성에서 일부 벗어나서, '깊이 있는 뉴스'의 제공에도 일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문화 저널리스트의 역량 강화나 기존의 언론관행보다 심화된 비평과 진단의 측면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보다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탐구와 진단의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미디어오늘, 2012년 2월 2일자 기사를 참고할 것.

원의 전반적인 활용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의 문화 저널리즘이 그 역할과 실행의 방식을 고려할 때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모색의 단면들을 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 취재의 관행과 저널리즘의 실천은 크게 바뀌고 있지 못한 문화 저널리즘의 현실, 그리고 그간 언론학자들이 표출한 우려와 비판점이 공명을 발하는 측면을 일정 부분 확인시켜 준다(김세은·이기형·김경희, 2014; 김영욱·진민정·강신규, 2014 참고).

외국 언론이 지면의 증감과 관계없이 문화 관련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양질의 기획기사나 심화된 스토리텔링의 혁신과 지속적인 실험성의 추구 등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전략적인' 노력을 꾸준히 탐색해온 추세와는 달리, 한국 언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이른바 '경성뉴스' 중심의 지면구성의 관행과 뉴스가치에 대한 확립되고 위계적인 평가의 관습성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세은, 2009; 안수찬, 2013).²⁴⁾ 이러한 현상은 또한 기성언론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과 뉴스 유통 경로의 다변화, '디스패치' 등 '연예 저널리즘' 영역 내 새로운 '행위자'들의 출현, 그리고 블로그와 팟캐스트 그리고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같은 대안적인 유로들(channels)의 거센 도전 등으로 생겨난 치열한 경쟁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더해 연예와 영상, 음식문화, 패션 그리고 이른바 '셀러브리티'의 동정이나 주변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광의의 연예 저널리즘의 위세와 효과가 종합일간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과 압박을 발휘하고도 있다. 동시에 문화면의 새로운 구성이나 참신성, 심층성, 그리고 심화된 전문성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차별적인 기획과 양질의 기사생산을 통한 '매체의 고급화와 브랜드화'에도 기존의 종합일간지들은 간헐적인 관심만을 투사하고 있는 형편이다.²⁵⁾

24) 신문의 열독률이 매우 낮아지고 기존의 독자들 외에 신규 독자의 유입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질적으로 뛰어나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논점과 비평 그리고 예리하고 감각적인 해석이 등장하는 문화면의 기사와 문화현상의 함의를 진단하는 저널리즘의 작업은 종이신문이 대면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가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어뷰징'과 보도 자료의 재생산 정도에 그치며, 복제되는 '연예 저널리즘' 영역의 기사들의 난립상과 흐름에 대한 기성매체의 차별화 전략의 일부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찬(2007)과 이상길(2013) 또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25) 이러한 측면은 뉴욕 타임즈 등이 시도해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낳기도 한 '양질의 문화 저널리즘을 통한 고급화 전략의 성공'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재원의 확보 등과도 연결되는 쟁점이다. '어뷰징의 역습, 수익논리로 획일화된 뉴스생산 시스템... 기사가 아니라 브랜드를 팔아라', 미디어 오늘, 2015년 4월 1일자 기사 참고.

즉, 본 연구의 발견점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위기를 타개할 제도적인 고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한 저널리즘의 현실을 반영하는 ‘징후적인’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또한 이는 앞서 언급한 미디어 생태계에 생성된 환경변화와 연동되는 문화 관련 기사의 생산과정에서,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나 이들의 활동을 개선하고 고무할 지원 시스템이나 재교육 등의 방안이 능동적으로 모색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빚어진 결과임을 일정 부분 추론할 수 있다(이정환 외, 2015; 조용철·강승묵·류용재, 2009 참고).

이번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다소 단적으로 표현할 때, 한국 언론의 문화에 대한 여전히 홀대와 정체된 현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위축, 그와 함께 성찰이 갖든 대안 추구의 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세은·이기형·김경희, 2014 참고). 지난 10여 년간 문화 저널리즘의 변화를 관찰·비교한 결과, 전체 지면이 줄어들면서 문화 관련 저널리즘의 활동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언론사 내부에서도 문화부와 문화 관련 기자들의 위상은 여전히 주변부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더 이상 종이신문이 제공하는 뉴스가 중년층과 노년층을 제외하고 읽히지 않는 시대, 소비와 일상,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대중문화 등의 문화의 영역이 한층 확장되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문화 관련 기사와 기획은 수용자들의 다변화된 문화적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공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함으로써, 언론사의 특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기에 효과적이고 긴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Fürsich & Avant-Mier, 2012; Hellman & Jaakkola, 2011; Jaakkola, 2015 참고). 나아가서 문화 저널리스트의 기능이나 문화 기사에 대한 중요성은 당대의 문화 수준과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적·사회적인 실천의 일부로 강조·고무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심을 조직적인 구상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 또한 상당한 사회적인 함의를 내장한다.

이러한 측면을 보다 구체적인 제언의 방식으로 풀면, 언론사 문화부에서 전문성과 감식안을 가진 전문 저널리스트를 키워내는 데 더욱 긴 시간과 제도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마다 여러 부서를 거치는 현재의 인사관리 방식은 적어도 문화부 내 핵심적인 그리고 역량을 인정받은 기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하며, 호흡이 긴 기사, 기존의 관행성이 고답적으로 발현되는 기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기사의 생산이나 장르적인 실험성이 발현되는—즉 차별적인 글쓰기의 양식성을 적극 권장하는—제도적인 기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제의식과 복안 또한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산학협동이나 연구자 집

26) ‘뉴스 넘쳐나지만 ‘진짜 뉴스’가 없다’, 한겨레, 2015년 8월 10일자 기사 참고.

단과의 공조를 통해서 문화 저널리즘의 역할과 실행을 고양할 수 있는 언론인의 재교육과 성취된 사례들에 관한 다면적인 평가와 보상 등의 기제들 또한 요구된다.²⁷⁾

조금 다르게, 문화 기사의 취재원은 보다 많은 수의 취재원의 활용,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과 직급의 취재원 등으로 확장시킬 필요성도 상당하다. 그래야만 문화영역 내의 새로운 의제 발굴과 함께 쟁점적인 사안에 대한 숙고된 진단과 논의 그리고 기자 집단과 전문가들과의 심화된 상호작용도 가능할 것이며, 변화하는 다양한 조류의 문화현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확장과 심층적인 접근의 발휘가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관습성을 재생산해내는 언론사 내 기존의 방식과 상대적으로 경직된 사고로는 문화가 발휘하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기사에 담아내기란 어려우며, 문화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부상하고 변화하는 일련의 문화현상들의 함의와 관련된 심화된 비평작업과 진단 기능의 정련화 또한 성취하기가 요원할 것이다.

문화 저널리즘은 사회 속에서 부상하는 일련의 문화현상을 포착하고 매개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진단 및 영향력과 반향을 생성함으로써, 문화현상을 해석하고 자리매김하는 데 긴요한 방향성과 지향점의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문화 기사는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종합일간지의 문화 관련 기사들에 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10년 전과 현재의 언론지면에서 문화 관련 기사의 특성과 변화상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자 했지만, 내용분석만으로는 기사라는 결과물 이면과 너머의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성을 다면적으로 포착하고 광의의 문화와 관련된 저널리즘의 실행과 한계에 관한 상세한 탐구와 평가를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저널리즘 영역과 문화 관련 주제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특정 유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단하면서 변화를 진단하고, 그 변화의 추이나 제도·사회적 함의를 경험적으로 탐문하는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10여 년간 생산된 문화 저널리즘 관련 기사들의 구성적인 변화, 성격이나 장르적인 특성, 그리고 특히 기사 속에 발현된 관점이나 방향성을 상세하게 혹은

27) 조금 다르게 타 부서 출신의 편집국장이 문화 기사 일반에 대해 뉴스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며 지면 배치를 주도하는 현재 언론사 내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1면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문화 기사에 할당하는—현재 소수의 언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파격과 실험적인 편집 또한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언은 이 연구와 병행하면서 이루어진 전·현직 문화부 기자들과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논의된 측면이다.

논쟁적으로 읽어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함의를 ‘두껍게 기술’하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Iorio, (ed.) 2003; Zelizer, 2004 참고). 특히 취재활동과 기사작성, 취재대상에 관한 문제의식 등과 관련된 관행은 제도적인 측면과 내부의 성향체계와의 결합물이며, 기자 집단에 대한 참여관찰이나 심층인터뷰 혹은 세밀한 텍스트 분석이나 메타비평 혹은 담론분석 등을 통해서 보다 조밀하게 밝혀내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Bird, 2009; Dickinson, 2007; Hayashi & Kopper, 2014; Jaakkola, 2015; Mayer & Banks, 2009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문화 저널리즘의 10년간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최종 결과물인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기사 구성의 특징과 취재원과 기고자의 면모 등의 측면을 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부 내부의 관행이나 집합적인 성향 그리고 취재과정의 주요 특징들을 충분히 근접해서 그리고 깊이 있게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향후 문화현상을 다루는 기자 집단이나 언론학자들의 관점과 체험을 분석의 주안으로 두는—예컨대 심층인터뷰나 생산연구(production studies) 혹은 특정 문화 관련 기사들의 특성과 함의를 상세하게 진단하는 사례분석이나 심화된 비평작업 등의—후속 작업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다. 문화 저널리즘에 관한 일련의 세밀하고 심화된 연구들이 등장하여 문화 저널리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명섭 (2005). <지식의 발견: 한국 지식인들의 문제적 담론읽기>. 서울: 그린비.
- 고종석 외 (2007). <기자로 산다는 것>. 서울: 호미.
- 강명구 (1991.8). 언론매체의 문화기사 연구: 문화기사 내용 분석. <신문과 방송>, 69-71.
- 강준만 (2013). <대중문화의 겉과 속>. 서울: 개마고원.
- 강태영 (편). (1998). <21세기 문화비전: 현대 한국의 문화와 언론>. 서울: 삼성언론재단.
- 김기봉 외 (2007). <29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 문화의 지형도>.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김동규 · 김경호 (2005). 취재 조직 체계와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89-128.
- 김사승 (2004).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충원 경로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56-78.
- 김선남 · 최용준 · 이영원 (2010). 지역신문 문화 관련 보도의 심층성에 관한 연구: 전라남 · 북도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1호, 50-76.
- 김세은 (2009). 한국 문화 저널리즘의 진단과 모색: 하나의 탐색적 논의. <미디어, 젠더 & 문화>, 11호, 5-40.
- 김세은 · 이기형 · 김경희 (2014). <디지털 시대의 문화 저널리즘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열규 (1991. 8). 문화현상과 문화기사 개발방안. <신문과 방송>, 66-68.
- 김영옥 · 진민정 · 강신규 (2014). <저널리즘의 품질: 평가 기준과 모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영옥 (2004). 문화부와 문화 저널리즘: '제2의 계몽'을 위한 문화 저널리즘. <언론과 문화: 한국 언론의 문화 관련 보도 현황과 발전 방향(11-47쪽)>. 서울: 삼성언론재단.
- 김영찬 (2007). '문화의 시대' 걸맞은 신문 보고 싶다. 한국일보, 2007년 5월 17일 기고문.
- 김진국 (2014). <디지털시대 문화면 콘텐츠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1년-2010년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궁협 · 안주아 (2007). 지역방송의 뉴스양식 및 보도 시스템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지상파 TV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3호, 81-114.
- 남재일 (2014). <사람의 거짓말: 말의 거짓말 자본가도 아니면서 자본가의 눈을 가진 외눈박이들을 위한 비평적 에세이>. 서울: 천년의상상.
- 남재일 (2013). 연예 저널리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중재>, 127호, 77-87.
- 남재일 · 박재영 (2013). <국내 연예 저널리즘의 현황과 품질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선영 (1998). <한국 신문 문화보도의 변화경향연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치완 · 김평수 (2011). <문화콘텐츠와 문화코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배정근 (2007). <저널리즘 글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심미선 · 김은미 · 이준용 (2008). 라이프스타일과 매체 이용행위 간의 관계 연구: 다중매체 이용과

- 매체 간 장르추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6호, 189-216.
- 안수찬 (2013). <뉴스가 지겨운 기자>. 서울: 삼인.
- 안수찬 (2007). <스트레이트를 넘어 내러티브로: 한국형 이야기 기사 쓰기>. 서울: 한국언론재단.
- 오수정 (2001.11). 기사 1건당 취재원, 한국 1.8, 미국 10.1: 보도비평-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신문과 방송>, 78-82.
- 윤선희 (2006). 문화보도 관행과 문화 저널리즘의 미래. <문화 저널리즘 위상과 문화 보도의 미래 (3-36쪽)>. 서울: 삼성언론재단.
- 원용진 (2010).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 이기형 (2014). 저널리즘과 문화: '문화 저널리즘'과 문화비평의 역할과 위상. 강내원 외 (2014).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울. 265-289.
- 이기형 (2006). 문화 저널리즘과 문화연구: 탈전통화, 네티워, 신자유주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문화를 심각하게 다루기. <문화 저널리즘 위상과 문화 보도의 미래(37-71쪽)>. 서울: 삼성언론재단.
- 이동연 외 (2010). <아이돌: HOT 에서 소녀시대까지 아이돌 문화 보고서>. 서울: 이매진.
- 이동연 (2010). <문화자본의 시대>. 서울: 문화과학사.
- 이상길 (2013. 10). 언론 문화비평의 현재와 과제. <신문과 방송>, 10월호, 6-9.
- 이정환 외 (2015). <저널리즘의 미래: 자기 복제와 포털 중독 언론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인물과 사상.
- 이재경 · 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한국언론학회 2000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이지현 · 고영철 (2008). 제주지역 TV방송 다양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514-556.
- 이택광 (2011). <이것이 문화비평이다>. 서울: 자음과 모음.
- 이택광 (2009). <무례한 복음: 이택광의 쾌도난마 한국문화 2008-2009>. 서울: 난장.
- 이희용 (2007). 포털의 수렁에 빠진 연예 저널리즘. <관훈저널>. 105, 119-129.
- 장호순 (편) (2004). <언론과 문화: 한국 언론의 문화 관련 보도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삼성언론재단.
- 정성일 (1996. 7). 영화담당기자는 '직무유기'중: 문화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과 방송>, 24-27.
- 정수복 외 (2014). <사회를 말하는 사회: 한국사회를 읽는 30개 키워드>. 서울: 북바이북.
- 정재철 (1996). 문화의 이분법화를 조장: 문화면 지면분석. <신문과 방송>, 1996-7, 21-23.
- 조용철 · 강승묵 · 류용재 (2009). <문화 저널리즘>. 서울: 다지리.
- 주창운 (2015). <한국 현대문화의 형성>. 서울: 나남.
- 차배근 (1979).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서울: 세영사.
- 최재봉 (2004). <최재봉기자의 글 마을 통신>. 서울: 새움.
- 홍성태 (2006).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 홍은희 (2012). 신문 증면과 문화 저널리즘의 변화. <문화경제연구>, 15권 1호, 143-172.

Allan, S. (2010). *News culture*.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Beck, A. (Ed.) (2003). *Cultural work: Understanding the cultural industries*. London: Routledge.

- Bennett, T. et al. (eds.) (2005). *New keywords*. London: Blackwell.
- Bird, E. (ed.) (2009). *The anthropology of news and journalism: Global perspectiv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arey, J.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Boston: Unwin and Hyman.
- Chaney, D. (1994). *The cultural turn: Scene-setting essays on contemporary cultural history*. New York: Routledge.
- Conboy, M. (2003). *The press and popular culture*. London: Sage.
- Dickinson, R. (2007). Accomplishing journalism: Towards a revived sociology of a media occupation. *Cultural Sociology*, 1(2), 189-208.
- Franklin, B. (2005). *Key concepts in journalism studies*. London: Sage.
- Fürsich, E., & Avant-Mier, R. (2012). Popular journalism and cultural change: the discourse of globalization in world music re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6(2), 101-118.
- Golin, C., & Cardoso, E. (2009). Cultural journalism in Brazil. *Journalism*, 10(1), 69-89.
- Hall, S. (ed.) (1997). *Representation*. London: Sage.
- Hall, S. et al. (1980). *Culture, media, and language*. London: Hutchinson.
- Hayashi, K., & Kopper, G. (2014). Multi-layer research design for analyses of journalism and media systems in the global age: Test case Japan. *Media, Culture, & Society*, 36(8), 1134-1150.
- Hellman, H., & Jaakkola, M. (2011). From aesthetes to reporters: The paradigm shift in arts journalism in Finland. *Journalism*, 13(6), 783-801.
- Hertog, J. K., & McLeod, D. M. (2003). A multiperspectival approach to framing analysis: A field guide. In S. D. Reese, O. H. Gandy, Jr., & Grant, A. E.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pp. 139-16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Iorio, S. (ed.) (2004). *Qualitative research in journalism*. London: LEA.
- Jaakkola, M. (2015). Witnesses of a cultural crisis: Representations of media-related metaprocesses as professional metacriticism of arts and cultural jour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8(5), 537-554.
- Keeble, R., & Wheeler S. (Eds.) (2007). *The journalistic imagination*. London: Routledge.
- Mayer, V., & Banks, M. (eds.) (2015). *Production studies: Cultural studies of media industries*. London: Routledge.
- Riffe, D., Lacy, S., & Fico, F. (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 research*. London: Routledge.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 Sims, N., & Kramer, M. (1995). *Literary journalism*. New York: Ballantine Books.
- Slater, D. (1997). *Consumer culture*. London: Blackwell.
- Stempel, H. (1952). Sample size for classifying subject matter i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29, 333.
- Stempel, G. H. III, & Culbertson, H. M. (1984). The prominence and dominance of news sources in newspaper medical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61(3), 671-676.
- Williams, R. (1976). *Sociology of culture*. London: Pelican.
- Zelizer, B. (2004). *Taking journalism seriously: News and the academy*. London: Sage.

Tracing the Changes of Cultural Journalism in Korea

Content Analyses of Major Newspapers

Kyung-Hee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Keehyeung Lee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Sae-Eun Kim

Associate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great significance we attach on culture, only a handful of researches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of cultural journalism. This study has aimed to unravel the changes in the trajectory of cultural journalism of Korean major newspapers,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they report.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ultural items have decreased compared to that of 10 years ago, although the entire number of pages has meanwhile increased. News items focused on 'products(advertisement)' and 'life(style)' have increased, whereas those on 'knowledge-refined' and 'leisure-entertainment' have decreased. 'Critique-review-commentary', 'academics' and 'performance-exhibition-art-music' items turn out to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soft contents such as mass culture, tourism, fashion and beauty, on the other hand, have increased considerably. Moreove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ews contributors remain almost the same, except that the proportion of ordinary readers/audience has slightly increased. Similarly,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 regarding the sources of direct quotation, the frequency of quotes from ordinary readers has increased. Consequently, these results imply how the cultural journalism of Korean newspapers are limited in encompassing diverse types of content, differentiating constitution, and presenting critical viewpoints.

KEYWORDS cultural journalism, status and practice, constitution of cultural contents, news source, contributor,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interpretation